

●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본 협회는 지난 5월 15일 1층 강당에서李大鎰이사장을 비롯한 전임원과 본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5개 우수부서와 15명의 모범직원, 36명의 10년 근속자에 대해 표창장과 부상이 시상됐다.

● 방재시험소 움직임 활발

본 협회부설 방재시험소(소장李裕龍)가 개소이후 각계의 주목속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부산개방대학 목인수교수가 학생연수 및 자료협조 요청차 내방한데 이어 서울대 유효선교수, 인하공전 오호환교수가 학생들을 인솔해 견학차 다녀갔으며 각 매스컴에서는 KBS 라디오「번모하는 현장」프로그램에서 시험소 현황을 소개했고 한국경제신문에서는李시험소장을 인터뷰, 동지 4월 26일자에 게재됐다.

이밖에 내무부 임병희기술제장과 소방검정공사 실무과장 4명이 방문, 시험소 관련자와 함께 국가소방검정업무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소방학교 중견간부반 52명, 안국화재 유기홍손해사정부장과 7명의 직원들이 시험시설을 견학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제1연구단장인 황해웅박사가 시험시설을 관람한 바 있다.

● 해외인사 협회방문

SKANDIA Inter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의 손해보험분야 언더라이터인 Christer S. Nilsson씨가 지난 4월 30일 본 협회를 방문했다.

Nilsson씨는 본 협회 3층 연수실에서 점검부서 기술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슬라이드 및 VTR 등 자료를 통해 멕시코 San Juanico에서 지난 84년 11월 발생한 LPG 저장시설 폭발사고에 관해 설명했다.

● 동신상가화재 피해자 보상

본협회는 지난 5월 29일 발생한 서울 도봉구 월계동 동신상가화재 피해자 전원에게 사망자(8명)의 경우 1인당 5백만원, 부상자(9명)는 상해등급에 따라 4백만원한도 내에서 각각 보험금을 지급했다. 본협

회는 또 동상가 54개 점포중 본협회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5개 점포에 대해서도 9천 4백여만원 범위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자매마을에 농산물전조기 기증

본 협회李大鎰이사장과李一男전무는 지난 4월 22일과 5월 8일 협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2리와 충북 제원군 청풍면 학현리를 각각 방문, 농산물 순환벌크전조기(시가 2백만원상당) 각 1대와 학생용품을 전달.

● NFPA 연차총회 참석

본 협회李大鎰이사장은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국제방화협회(NFPA) 제90차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 종합심사분석 보고회의

본 협회는 지난 5월 23일 6층 회의실에서李一男전무를 비롯한 임원진과 본지부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85회계연도 종합심사분석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 새마을일꾼 해외연수 참가

본 협회金亨基이사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주관한 86새마을일꾼 해외연수에 참가, 지난 5월 23일 김포공항을 떠나 대만과 일본을 둘러보고 6월 4일 귀국했다.

● 대형 공장물건 위험조사

본 협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특수전물지역이 아닌 전국에 소재한 대형공장물건 120건에 대해 위험조사를 실시했다.

협회가 지난 81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이 위험조사 업무는 고객계약물건의 건물 및 시설에 내재한 재해발생요인을 세밀히 조사·분석하고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 불조심어린이단 정기교육

본 협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전국 7대도시 불조심어린이단에 대해 86년도 전반기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소방대책 연구 보고대회

내무부는 지난 5월9일 서울시소방본부회의실에서 내무부 柳景鎭 소방국장을 비롯, 전국 시·도 방호계장 13명과 주요 호텔 방화관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6아시아안 게임과 88올림픽경기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빈도가 높고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호텔소방대책에 대한 연구보고 대회를 가졌다.

●接客업소 전기시설 안전점검

내무부는 86아시아안게임과 88올림픽경기를 앞두고 5월10일부터 7월말까지 전국 9개 도시에 소재하는 3천2백11개소의 유흥接客업소에 대한 전기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양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점검대상지역은 외국인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대도시 및 관광도시이며 업종은 살롱, 맥주홀, 요정, 극장식 식당, 카바레 기타 유흥장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강조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복합상가건물 소방안전점검

서울시 소방본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늘 출입하여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복합상가(사무실, 각종 학원,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문구점, 의류점, 세탁소등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입주) 건물의 화재 취약요인 및 인명피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86년6월2일부터 30일까지 28일간 복합상가건물 1만4백75개소에 대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비상구개방상태를 포함한 피난시설관리의 적정여부, 화재취약시설 시정지도,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기타 위험물 및 화기취급 안전여부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며 불량상태가 심할 경우는 사용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특히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비상구시건 및 피난계단의 장애물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각, 이를 시정토록 당부하고 있다.

● 불법위험물 일제단속 결과

서울시 소방본부는 지난 4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연1천3백23명의 소방관을 동원, 서울시 일원의 불법위험물 제조, 저장 및 취급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모두 51개 업소에서 28,533ℓ(142드럼)의 불법위험물을 적발하여 이중 25개 업소는 입건, 26개 업소는 즉시 처리했다.

위반업종별로는 주차장이 12개소(23.5%)로 가장 많고 화공약품상이 10개소(20%), 공장 9개소(17.6%)순으로, 단속품목별로는 경유가 7,800ℓ(27%), 등유 7,150ℓ(25%), 유사휘발유 3,762ℓ(13%), 솔벤트, 신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어린이소방대 발대

서울시 소방본부는 86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서울시내 405개 국민학교 어린이 소방대를 재정비 조직, 4월중 각 학교별로 발대식을 가졌다.

조기 소방교육을 통해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목적을 둔 어린이소방대는 각 국민학교 4, 5, 6학년 남녀학생 1백명 내외로 조직되어 있다.

한편 지난 4월9일 오후 영등포소방서는 진선미에 식당에서 관내 37개 국민학교 지도교사, 어린이소방대장 및 관내유지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 소방홍보기법 개발 심포지움 개최

내무부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중부소방서 강의실에서 내무부 李在昌 민방위본부장을 비롯 각 시·도 소방관계관과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의 관련단체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홍보기법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소방홍보의 활성화로 국민방화의를 제고시키고자 마련된 이 심포지움에는 KBS 보도본부의 李炳 대기홍보도실장 등 매스미디어 전문가 4명이 연사로 초빙되어 보도매체의 특성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 보험업계 대표자 조찬간담회

재무부는 지난 4월 22일 대한상의클럽에서 보험업계 대표자를 초치, 조찬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鄭 寅用재무부장관을 비롯, 李 同浩제1차관보, 白 源九증보국장, 宋 炳循보험공사 사장등 손, 생보업계 사장단이 참석하였다.

● 신동아사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대표 金 榮東)는 지난 4월 1일 창립 제40주년을 맞아 본사 9층 강당에서 崔 淳永그룹회장을 비롯,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직원과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하였다.

● 손보업계 영업실적 개선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손해보험업계가 85회계연도 주총결과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8일 일제히 주총을 연 13개 손보사중 한국자동차보험을 제외한 12개사가 규모는 작지만 흑자를 기록하였다.

12개 손보사들은 85회계연도(85. 4~86. 3) 중 고려화재의 8억1천2백만원을 비롯, 총 43억4천7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려 84년도의 3억2천7백만원의 적자에 비해 영업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5회계연도중 국내 손보업계의 외형(수입보험료)은 84년의 8천7백33억원에서 16.4%가 증가된 1조1백66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 여성 경제대학강좌 개최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강릉시 여성회관에서 이 지역 여성 3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제14회 여성경제대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 강좌는 가정주부 및 미혼여성들의 교양증진과 손해보험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현대여성들에게 생활경제 지혜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사회발전에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손보단 친선 테니스대회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지난 5월 9일 여의도소재 제일 테니스클럽에서 손해보험회사 임직원 및 유관기관등 17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손보단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범한사(청군), 해동사(백군), 국제사(여직원조), 안국사(임원조)가 각각 조별 우승을 차지하였다.

손해보험협회는 스포츠를 통해 손해보험업계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친선테니스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 한·일 보험세미나 개최

한국보험학회(회장 朴 恩會)는 지난 5월 2일 학회 창립 22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전남대 소강당에서 산, 학 협동과 보험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일보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박은회(성균관대 교수) 보험학회장을 비롯 서돈각(경희대), 한동호(성대), 송기철(고대), 손주찬(연대), 구하서(성대) 교수등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해외 재보험적자 매년 급증

손해보험 업계의 해외 재보험적자폭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5회계연도중 국내 13개 손보사는 모두 1억1백만달러(약9백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자는 84년도의 8천3백만달러에 비해 21.5%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해외재보험 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내 손보업계의 담보능력부족과 보험계약 인수기술의 취약으로 인해 손해율이 낮은 우량물건들을 대거 해외로 출재할 수 밖에 없는 여건과 함께 해외의 악성물건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성적인 해외 출수재의 역조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업계의 담보력 확충과 계약물건의 철저한 위험관리등 보험인수기술의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